

지난해 12월 7일 발생한 충남 태안의 '하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는 우리나라 환경사상 최악의 해상 기름유출 사건으로 기록될 것 같다. 그동안 '검은 재앙' 앞에 죽어가던 바닷가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 아래 전문가들도 놀랄 정도로 빨리 복구되어 가고 있다.

어느덧 태안유류오염사고가 두 달째로 접어들면서 전 국민 자원봉사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 1996년 해인골프장 건설반대운동 시 전국적인 서명운동이 100만 명을 넘어선 이후, 일반국민들이 이루어진 자원봉사로 100만 명을 기록하였다는 것은 한국환경사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기록한 중대한 일이기도 하다. 그만큼 환경에 대한 소중함을 일깨운 사고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도 어려운 국가적 재난을 당하여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해결하고자하는 관심과 노력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여하튼 이번 사고는 여러 면에서 중요한 문제점과 방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첫째는 사고선박의 무관심과 무대응이었다. 조금만 관심을 갖고 안전대책에 신경을 썼더라면, 사고자체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책임소재의 규명과 확실하고도 책임 있는 보상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는 1995년에 발생한 여수 씨프린스호 사고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한 유류오염에 대한 관리체계가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점에서 이번 사고를 참조한 철저한 분석과 관

련 매뉴얼, 전문성을 확보하여 유사시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셋째는 전국에 걸친 전 국민의 참여로 인한 자원봉사가 잘 체계화되지 못한 측면도 있었다. 정부기관 및 시민단체사이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유사시 조직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여야 한다.

넷째는 이번사고와 같은 자원봉사가 단지 눈에 보이는 몇 달만의 단기간에 걸친 일시적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사고의 규모와 피해가 과학적으로 확인되고, 더욱 복원

불자 세상보기



이병인
부산대 지역환경시스템공학과 교수

태안 유류사고와 불교계의 역할

되기까지는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조사와 관리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긴 호흡으로 준비해 가야 한다.

이와 같은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하더라도 전 국민이 자발적으로 동참했다는 점은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본다.

2005년 미국에 머물 때 카트리나 사고를 보면서 미국사람들의 자원봉사와 기부문화를 직접 체험하게 되었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 넉넉하지 않은 사람들도 어려움을

같이 나누고자 했다. 사랑과 봉사의 실천행이 중요함을 잘 알 수가 있었다. 미국사회를 이끌어가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군사력과 경제력만이 아니라, 사회전반에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는 다방면에 걸친 자원봉사와 건전한 기부문화였다.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것은 이와 같은 사회전반에 걸친 나눔의 문화가 보편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태안 사고에 대한 불교계의 대응 또한 초기부터 중단을 해당지역 본사인 수덕사, 불교환경연대 등 불교시민단체에서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왔다. 그동안 불교계가 안고 있던 우리들만의 관계가 아니라, 지역과 국가적 관심사에 몸으로 솔선수범하는 실천행의 구체적인 사례로서 태안 사고는 특히 중요하다.

앞으로도 지역피해주민과 해양복원에 관한 충분한 보상 및 장기적인 관리가 절실한 실정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고에 대한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자원봉사와 성금의 조성 등 지원이 절실하다. 아직도 제대로 방제되지 않은 도서지역 등 사각지대가 많이 남아있고, 해양오염의 특성상 한 두 해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라, 수십 년에 걸친 장기적인 관리와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이미 불교계는 상당히 조직화되어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지만 일시적인 단기간에 걸친 관심과 행동만이 아니라, 이제는 적어도 수년에서 수십 년에 걸친 관심과 활동으로 적극 준비하고 활동해 가야 한다.

불자의 눈

성도절의 정진 생활로 이어져야

1월 14일 성도절 전야에 전국의 사찰에서는 승가와 재가 구분 없이 철야 용맹정진을 했다. 동안거 결계중인 선방문을 열고 재가불자와 함께 정진을 한 사찰도 있다. 성도절 전야의 철야용맹정진은 수행과 교화를 본분으로 하는 불교의 힘이다. 부처님 되신 날을 기려 '우리도 부처님 되신 날'을 기리는 불제자가 되겠다는 다짐의 의미와 하루속히 성불을 하기 위해 수행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발원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불자들은 성도절 전야의 철야용맹정진을 한 번의 경험으로 묻어버리는 경향이 있다. 수행과 생활은 둘이 아니다. 살아 있는 매순간이 화노애락의 범주 속에 있다면 연기(緣起)하는 모든 관계를 초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노력이 바로 수행이다.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그에 대한 집착을 떠나는 것이 수행이다.

성도절 전야의 철야 용맹정진은 성도절을 기리는 행사가 아니라 스스로 수행을 다지고 발심의 끈을 조이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 그를 통해 생활 현장에서 매 순간이 수행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을 닦고 또 닦아야 하는 것이다. 수행을 하여 자신의 삶이 맑고 향기롭게 변할 때 주변 사람에게 행복의 향기를 나누 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매순간 수행하는 불자가 되자.

“불교계 공약 지키겠다”에 기대

“후보시절 공약한 대로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세계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가 마련한 한국불교지도자 신년 하례법회에서 이명박 당선자가 한 다짐이다. 이명박 당선자는 “대선후보시절 대덕 큰스님들의 불교적 가르침과 조언이 큰 힘이 됐다”는 말도 했다. 대선 과정에서 불교계로 인해 힘을 얻은 바 있고, 이제 새로운 정부를 통해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세계화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는 ‘공약의 재다짐’ 인 셈이다. 전통문화란 말로 포괄적인 표현을 했지만 분명 불교문화를 포함한 것이라 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있어 불교문화는 종교적 범위를 초월한다. 민족의 역사에 내포된 불교문화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현대사회에서도 불교문화는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부합된 코드로 작용하는 것이 사실이다. 전통문화와 불교문화라는 개념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이명박 당선자가 불교계 지도자들 앞에서 말한 전통문화는 불교문화를 크게 내포한 개념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이명박 당선자는 새로운 정부를 이끄는 동안, 불교관계법의 개정 등 비문화재 보수 관련 예산 증액 등 불교계에 대한 각종 약속들을 지켜야 한다.

무엇보다 불교계에 지켜야 할 약속은 종교적 편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이미 서울시장 시절부터 불교계의 종교편향 문제로 질타를 받는 전례가 있으므로 대통령의 입장에서 정부기구의 종교편향 방지를 위해 더 큰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믿는다. 이명박 당선자는 드러나지 않은 대불교계, 혹은 대종교계 공약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종교간 상생과 화해를 이끌어 가는 것이다.

“깊은 믿음은 즐거움과 지혜로운 행을 낳는다”

불기능을 극복한 성

이제는 얼마 전 공무로 중국 북경을 방문하게 되었다. 마침 북경의 명소인 만리장성에 가게 되었다. 안내해주는 분이 “은 좋은 줄 아세요. 예전에는 무조건 몇 시간을 걸어 올라가야만 했어요” 한다. 이제는 케이블카가 생겨서 산 위까지 6인용을 타고 올라갔다. 거기에서 정상까지 약 한 시간을 걸어 올라갔다.

사방 어느 쪽을 둘러보아도 능선마다 장성은 끝없이 굽이굽이 펼쳐지고 있었다. 발로는 많이 들었지만 그 어마어마한 규모는 과연 상상을 초월하였다. 그 옛날에 이렇게 높은 산 위까지 그 큰 돌을 어떻게 운반할 수 있었는지부터가 의문이었다. 또한 크기를 맞추어 정교하게 쌓아 올린 돌을 보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피와 땀이 서려있는지 짐작이 되었다. 묘지라고 불릴 정도로 성을 쌓는 과정에서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다고 한다.

특히 정상근처의 길은 무척 가팔라서 옆의 난간을 붙잡고 올라가야할 정도였다. 걸어만 가도 힘든 이 산길 위에 어떻게 이런 공사를 했을까 생각하는데 동행하던 분이 “정말 인간에게 불가능은 없는가 봐요”라고 하였다. 동감이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④8 만리장성과 영원한 불성

그 옛날에 이런 성을 쌓을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진시황의 명령으로 중국인들은 해낸 것이다. 이제는 그 모든 무명영가들을 위해 마음을 내었다. '부디 모든 고통과 집착을 놓으시고 벗어나소서. 부처님, 그들의 마음을 밝혀 주소서.' 원래 홍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한 것이었는데 이 성을 쌓은 후에는 감히 중국을 넘보려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온 남녀노소 관광객들로 붐비고 있으니 역사의 무상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다.

Dream(하나의 세계, 하나의 꿈)이다. 만리장성을 쌓은 진시황은 죽지 않는 불사약을 구하려고 애쓴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그의 꿈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이었다. 진시황은 불교의 가르침을 알지 못했다. 자신이 그렇게 간절히 찾았던 영원히 죽지 않는 불성, 부처님의 마음이 바로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헛되이 세상 속에서 찾으며 많은 악업을 지었다. 절대 권력을 행사했던 그는 중국에서 최초로 황제라는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다. 이찌가 웃으며 “난 비록 광범한 사람이지만 영원한 불성을 믿고 마음정진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 황제와는 비할 수 없이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자기는 세간의 황제일지 모르지만 전 불자, 부처님의 자식인걸요” 한다.

이 우주 삼라만상에 불성으로부터 비롯되지

않은 것이 없다. 불성은 무시(無始) 이래로 있어 왔고 지금도 있으며 영원토록 있을 것이다. 불성은 진리요 영원이요 모든 것이다' 하는 말씀이 떠올랐다. 세상 모든 이의 꿈은 바로 성불의 깨달음이었다.

마음의 힘으로 장성을

성불의 꿈으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적군은 탐진ちに 져든 습관과 무기력감, 고통과 문제를 극복하기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었다. 정작 견고하게 쌓아야 할 성은 내 자신 내면의 마음의 힘으로 건설하게 됐다.

또 아무리 만리장성이라 해도 첫 돌부터 하나 하나 쌓아서 이루어진 것임을 기억하게 되었다. “그래, 아무리 성불의 길이 멀다 해도 또 가다가 다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꼭 보살의 원력을 이루어내어야지. 다음 생 또 다음 생에도 역시 계속해서 이 길을 가야겠다” 하는 다짐을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하고 있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만리장성을 보며 이찌의 내면에는 광대무변한 부처님 마음이 피어나고 있었다.

황수경(중국대 선학과 강사)

일본 체류수행자 입방안내

대상
비구, 비구니, 법사(남·녀), 포교사

조건

- 1 입방자는 학력, 연령제한없음
- 2 3년수행후 본종단에 입방을 원할시에는 영구 상주 가능
- 3 입방 상주자에게는 생활보장 영주권 취득시까지 행정적 지원함
- 4 일본에서 사찰 개원하고자하면 본 종단에서 적극 지원함

문의

- 일본국 주소

- ◆ 우편 619-1401
日本國 京都府 相樂郡 南山城 村童仙房 8番地 總本山 高麗寺
이메일 mandeuk@yahoo.com
- ◆ 일본 직통 휴대전화 001-81-090-3719-1571
전 화 001-81-0743-93-0843
팩 스 001-81-0743-93-0670
- ◆ 우편 544-0033
日本國 大阪府 大阪市 生野區 勝山北 5-12-39 大本山 普賢寺
전 화 001-81-06-6712-1015, 1016
팩 스 001-81-06-6741-1755

중앙불교대학원 학인 (승려, 행자) 모집

- ◆ 모집학과 : 사미과 6개월 과정 (3개월 기본교육 - 습의, 3개월 통신교육)
- ◆ 원서접수 : 2008년 1월 5일까지
- ◆ 개강일시 : 2008년 1월 7일 (월요일)
- ◆ 제출서류 : 입학원서, 주민등록등본 1본, 사진 5매
- ◆ 자격요건 : 강원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스님이 되고자 발심한 초심자(행자)
- ◆ 특 전
 - 6개월 기본교육 이수 후 사미계 수계득도 하도록 지도하고 사찰(포교원) 창건 시 초심자라도 여법히 법회를 봉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합니다.
 - 졸업 후 다양한 형태의 평생교육이 지속됩니다.
- ◆ 사미과 교수 : 현봉 (통도사 출가, 보광선원 금강선원, 현 무사암 주지)
- ◆ 수강료 : 일백오십만원(지도비, 삼개월 숙식제공)
- ◆ 문의처 : 본 대학 사무국 (대표전화 031-676-0908 / 팩스 031-676-0206) 경기도 안성시 보개면 신장리 산 44번지

중앙불교대학원

퇴행성 류마티스 - 관절염 한방(韓方)치료한다.

중정한의원 왕 원장은 통상관절염이란 관절의 염증 변화가 생기는 모든 종류의 질환을 지칭하며 궁극적으로는 연골과 뼈를 손상시키며 심해지면 뼈와 뼈가 직접 마찰되어 뼈의 기형화를 일으키며 극심한 통증을 유발시킨다. 왕 원장은 “한방 치료를 통하여 관절염의 고질인 통증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한다.”

◆ 퇴행성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은 어떻게 다른가?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이 나이가 들어 따라 피부가 주름지고 머리가 희고 동맥경화가 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관절 안의 연골(소위 말하는 물렁뼈)에 주름이 지거나 닳아 없어지는 것을 말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성의 이상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서 나이에 관계없이 아이에서부터 나이 든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어느 연령에서든지 발생할 수가 있으며 퇴행성 관절염은 40대 이후 50대 그리고 나이가 들어갈수록 발생률이 높아진다. 그리고 주로 침범하는 관절 부위가 서로 조금씩 다른데 류마티스 관절염은 손가락, 발가락, 손목, 무릎, 발목 같은 관절에 많이 오지만 퇴행성 관절염은 손가락 끝마디, 무릎 혹은 발목, 척추 그중에서도 요추 같은 체중이 실리는 즉 몸무게가 많이 실리는 관절에 주로 나타난다고 왕 원장은 말한다.

◆ 관절염 통증 치료한다.

관절염은 그 정도에 따라 경중(輕症), 중중(重症), 중중(重症)으로 나뉘며 초기관절염은 가벼운 통증을 느끼는 정도이고 중기에는 관절 주위가 심하게 붓고 통증은 심해지고 통증이 시작되면 2일~3일간 지속된다. 말기에는 통증이 극심해 일상생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면에도 어려움을 느끼며 최악의 경우 관절 모양 자체의 변형이 유발되기도 한다. 왕 중진 한의학 박사는 “한방 관절염 치료를 통하여 진행 속도와 상관없이 통증은 쉽게 호전되고 밤에 고통 없이 수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한다. 관절의 상태를 되돌리는 데는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초기의 경우 1~2개월의 한방치료가 가능하며 중중(重症), 중중(重症) 관절염 환자의 경우는 3~6개월 정도의 치료기간이 필요하다.

중정한의원
상담문의 080-521-6666